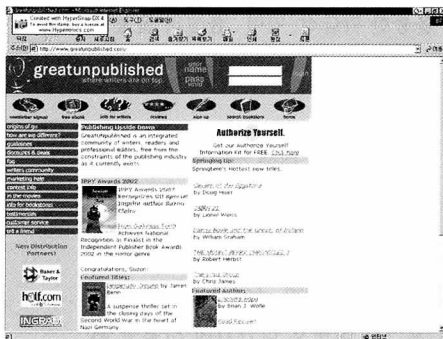


# 차세대 출판으로 해외에서 각광받는 POD출판

전자책과 연동성 높아 세계의 관심 높아져

이용준 | 신구대 출판정보미디어과 교수 · 영국 스텔링대 방문연구원



독자에게 주문받은 책을 48시간 안에 완성해 배송하는 독일 그레이트 언퍼블리시드 출판사의 웹사이트 초기화면.

지금 세계 출판계는 POD(Print-on-Demand, 주문형 출판)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고 조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유에스 컨설턴시(US-Consultancy)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현재 15% 정도의 인쇄출판물이 POD에 의해 출판되고 있으나, 향후 3년 안에 30%까지 POD출판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다.

## 세계에서 POD출판 투자열기 높아

주지하다시피 POD출판은 현재와 같이 대량 생산에 기초한 출판이 아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내용만을 취합해서, 원하는 분량만큼 생산하는 새로운 개념의 출판이다. 따라서 POD출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쇄기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수권에서 수십 권에 이르는 소량 출판물의 생산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제목의 출판물이라도 서로 다른 목차와 내용을 담은 책(different versions of books)을 만들 수 있다. POD출판을 활용하면 출판사는 재고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초판 제작시 과도한 고정비용이

투자되는 문제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세계의 출판 시장은 POD출판에 대한 투자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맥밀란(Macmillan)출판사는 미국에서 POD를 이용해 대학교재를 활발히 생산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이미 절판된 도서를 POD방식으로 생산해 원하는 소비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미국의 도매서점 잉그램(Ingram)의 자회사인 라이트닝 소스(Lightning Source)는 1997년부터 약 150만권의 책을 POD로 찍어냈다. 현재는 매달 15개 언어로 10만권이 넘는 책을 출판하고 있다. 한꺼번에 1만7천권이 넘는 책을 주문받아 48시간 안에 제작해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라이트닝 소스의 자랑이다.

영국출판계에서 디지털 출판의 선두주자인 테일러 앤드 프란시스(Taylor & Francis)는 약 1만5천종의 책을 디지털화해 POD로 출판하고 있다. 이 출판사는 주문형 출판이 출판의 장래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POD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의 그레이트 언퍼블리시드(GreatUnpublished)는 95%의 책을 POD로 출판하는 출판사이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제프 쉬와너(Jeff Schwaner)는 한때 자기 책의 출판을 거절당한 작가였다. 그러나 그는 POD출판이 막대한 수익을 남길 것이라는 가능성을 믿고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1년이 안돼 그레이트 언퍼블리시드는 이윤을 내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독자에게 주문받은 책을 48시간 안에 완성해 배송

하는 정책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POD는 e-북과 연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즉 POD출판을 위해 저장된 디지털 파일은 곧바로 e-북으로 출판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맥밀란 출판사는 독자들의 선택에 의해 POD버전과 e-북버전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레이트 언퍼블리시드는 POD 타이틀을 구입한 고객에 한해서 e-북버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회사는 POD와 e-북의 연동성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POD엑스체인지(PODxchange)란 시스템을 개발했다.

## 국내 POD출판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한편, 우리나라에도 POD출판을 시행하고 있는 몇몇 출판관련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YES24, 타라, 아이올리브 등이 차세대 출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POD출판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POD출판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닝 소스처럼 대대적인 주문형 출판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 없으며, POD를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곳도 없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처럼 POD와 e-북을 연동해 디지털 출판 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독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곳도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POD출판은 디지털 출판 환경에 가장 현실적으로 근접해 있는 출판 방식이다. 외국 출판계가 POD출판으로 큰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때, 우리 출판계도 POD출판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

**이용준** 교수는 중앙대 신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신구대 출판정보미디어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디지털혁명과 인쇄매체> <전자출판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 등을 펴냈고 <인터넷 출판의 현황과 전망> <전자출판과 출판의 미래>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